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은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돼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 이런 비참한 역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치명적인 상흔을 끼쳤다. 이런 구도는 불교에도 동일하게 미쳤다. 그래서 일제하의 불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역사이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불교는 '식민지 불교'라고 지칭된다. 식민지 불교는 당시 불교계의 체질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유산은 지금도 불교의 각 분야에 남아 있다. 식민지 불교는 일제의 통치에 억압, 일본불교의 유입, 일제 불교정책 및 일본불교에 저항, 전통불교의 퇴진 및 수호를 의미한다. 식민지 불교가 끼친 불교 내부의 영향은 다양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불교에서는 일제가 불교를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관리하여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이 변질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산증불교를 탈피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한국불교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측면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식민지 불교의 내용, 성격, 영향, 문제점 등은 이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우선 그 영향 및 내용을 제시한다.

그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거론할 것은 불교 근대화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불자 세상보기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술국치와 한국불교

불교 근대적인 제도의 수용을 촉진해 하였다. 조선시대의 산증불교에서 탈피하여 대중불교로 나가려는 의식과 맞물려 종헌, 종법, 제단법인, 분발사 제도 등 근대적인 종단으로 활동케 하는 조직과 행정을 경험했다. 동시에 불교 근대화, 불교 현대화를 위한 불교혁신론을 잇대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개항기 이후 불교의 배척이 사라지고 승려 인권이 고양되면서 불교는 복권되었다. 이런 변화는 불교가 사회와 대중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기존 불교의 관행 및 의식을 개혁하려는 혁신론을 일어나게 추동했다.

불교근대화는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포교 활성화로 가져왔다. 일본불교가 불교 발

전의 모델로 인식되면서 승려의 일본유학이 보편화되었다. 일본유학은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토착화를 촉진해 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강원과 선원의 교육이 후퇴하고, 승려들이 세속화 풍조가 팽배했다. 그리고 학교와 포교당이 세워지고 불교 잡지와 불교 책자가 발간되었다. 이는 불교 포교의 성과물인데, 일본불교의 영향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장과 포교방법에서 자극 받은 것이다.

그러나 전통불교의 퇴진 및 반불교적인 정서를 고착화시켰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불교계에 권력 지향의 속성이 노골화되어 공권력 의존, 주지권력의 집중, 친일승려의 등장, 선거문화 이식, 사찰재산 탕진, 명

리추구, 승려간의 갈등, 불교 공동체의 이완 등을 가져왔다. 나아가서는 불교의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불교도 사회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불교사회화의 논리에서 나왔다. 승려들의 막행막식이 자행되고 승려결혼이 수용되었음은 대표적인 예증이다. 대처승과 은처승은 그 부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성찰케 하였음은 다행이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한국불교를 관리하였기에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은 후퇴하였다. 불교인들이 저항하였지만 일제의 강압으로 그는 가시밭길이었다. 일본불교와 차별적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종합불교, 호국불교, 민족불교, 정화불교는 여기에서 나왔다. 동시에 식민지 불교의 체질이 불교의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일제 강점은 한국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종단 및 구성원들에게서 식민지 불교의 실체와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성찰을 찾을 수 없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대하려는 건강한 역사의식이 부재하다. 그 시기의 긍정, 부정 을 다 끌어안고 가야한다. 우리의 불교사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팽개칠 때에 우리의 불교사는 존재할 수 없다.

사설

화쟁,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화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 는 유용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위가 곧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강석도 제련을 거쳐야 보화가 되듯 쪼임과 담금질이 없이는 그저 돌맹이일 뿐이다. 화쟁도 우리의 삶 속에 배어들어 생각하고 말하는 중에 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조한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절 문 안에서 불자들 사이에 서만 유통되는 금과옥조이어서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화쟁의 문화화'를 위한 발걸음을 땀다. 불교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국불교사의 주류는 왕실불교와 산증불교라는 두 극단의 자취를 남겼는데, 화쟁위원회

를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의 한복판에 스스로를 세운 것이다.

화쟁위원회는 지금 4대강 개발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등 둘러싼 갈등을 의제로 삼아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듣고 화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화쟁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가부 또는 찬반을 가르는 기구가 아니다.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기구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회피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 사회의 숙길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화쟁은 일상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화쟁의 문화화를 위한 종교인, 연구자, 문화예술인 등의 어울림마당이 더 펼쳐져야 한다.

왕흥사지, 4대강에 휩쓸려선 안된다

4대강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우려는 일찍이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으며, 지금도 속도전의 기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막가파'라는 격양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는 것이다.

지난 20일 부여의 금강변 왕흥사지에서 천도재가 봉행되었다. 4대강 공사로 사라질 유적에 대한 고별 의식이었다. 왕흥사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금강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의 여파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도 왕흥사지 주변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 한탄스럽다.

회의 우수성과 신비로움을 밝혀주는 열쇠가 왕흥사지에 있으며, 역사 교과서가 바뀔 정도의 큰 가치를 지닌 백제 유적의 보고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불교환경연대와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는 강조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 입장대로 4대강 공사가 중차대한 만큼 문화유적의 보존도 그 중요성에서 결코 적지 않다.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왕흥사지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 4대강 개발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럿이겠지만,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바벨수룩 돌아가라 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현황하면, 대개 자원봉사자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분야와 봉사자 관리제도와 같은 것들이 소개될 수 있다. 이는 현황을 파악하는 경로가 다양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봉사로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은 자원봉사자의 종교별 구성비가 발표될 때 봉사자의 비중이 작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먼저 살펴 볼 필요도 있다.

통상의 사회조사(예: KGS)와 같은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문은 자기기입 혹은 면접응답 방식으로 응답자의 봉사활동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조사 통계의 경우와 비교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인증 관리된 자원봉사 통계나 공식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관리된 자원봉사 통계가 조금은 더 근사치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설립하기 시작한 자원봉사센터는 2008년 말 현재 전국에 248개소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연합회'도 발족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439만 7000여 명이다. 여성(57%)이 남성(43%)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10대(25%)와 40대(21%)가 많고, 30대(15%)와 20대 순이다. 직업별로는 종교생(18%)이 가장 많고 주부(16%), 회사원(7%), 대학생(5%), 자영업자(5%) 순이다. 등록된 봉사자



사부대중 칼럼-자원봉사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낮아지는 종교인 봉사참여율

의 활동은 연인원 1400만 명에 이르며, 사회복지분야에서 381만 명(27%), 환경분야 141만 명 (10%), 공공기관 84만 명(6%) 등이다. 등록자중 2008년에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은 등록자의 44%에 불과하다(2008년 말 현재, http://www.kfvc.or.kr)

2001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제(VMS)는 2010년 현재 전국에 7155개 소의 인증센터와 1만 7794명의 인증요원(자원봉사관리요원), 1108개의 지역사회봉사단을 갖추고 있다. 인증센터란 공식 인증요원을 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서 봉사자의 활동내역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누적 관리하는 곳이다. 2010년 인증 봉사자는 약 89만 8240명, 그 중 학생이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주부가 많다.

봉사활동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장애인시설-복지관-아동시설의 순이다(http://www.vms.or.kr).

간략하게 살펴본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봉사자의 절대 다수가 학점의무에 연관된 종교생 및 대학생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봉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 이미 등록된 봉사자 가운데서도 연 1회의 봉사도 하지 않는 숫자가 절반을 넘는다. 요컨대, 충분한 자발성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순수민간보다는 정부주도의 관리체계, 봉사활동은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어떤 기관에도 등록하지 않고 인연 따라 무주상의 봉사를 하는 무명의 봉사자들도 상당수 있으

리라곤 예상은 하지만, 그런 까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물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봉사자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성인 봉사자 가운데서는 전업주부가 월등히 많다. 성인남성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만 대책이 설 것이다.

외국에 비해서 일반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는 단초비교 외에, 우리나라 종교인의 봉사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http://www.volunteer21.org)는 통계도 깊이 반성돼야 한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봉사와 나눔을 가르치지 않는다. 불교계는 불자들의 자원봉사 실태를 독자적으로 분석하거나, 그에 따라 각별한 봉사활동 증진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 않다. 시절은 이미 지구촌 공동체로 확대되었는데 불교계에서 국제봉사단의 활약 자원봉사단은 현재 2000명이고 산하지부 봉사단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라는데(2010년 8월 현재, www.mahayana.or.kr), 그 정도면 대한민국의 불자인구 비율을 생각할 때 적정한 숫자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자원봉사는 부처님이 강조한 이타행·자비행 중 하나이다. 해답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에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 5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깨툰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 ▶개 강: 2010년 8월 30일 (월)
-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일 제공
- ▶수련비: 200만원
-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검쟁이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중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일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문빌딩2층)
042) 255-0734~5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